

## 周易思想의 形上形下論과 生死觀(五)

跛龔生

그런데 生物統計學의 方面에서 死의 問題를 究明한 빠루는 그의 著『死의 生物學』中에서 死의 原因, 死의 意義 및 壽命에 關한 見解를 述하여 그를 다음과 같이 個條로 列擧하였다.

(1) 生命 그것은 本來 持續的인 것이다.

(2) 單細胞의 生命일지라도 그것은 實在的으로는

極 度로 複雜한 物理 化學的 現象이다.

(3) 死의 不連續性은 生의 必然한 本質的인 性質도 結果도 아니요. 進化의 過程에 나타난 機能과 構造의 分化에 依하여 生起한 相對的의 全히 새 現象인 것이다.

(4) 死가 必然的으로 生起하는 것은 機能의 分化와 特殊化에 依하여 各部의 再現能力을 喪失함과 같은 多細胞生物體의 體細胞에 關해서만 말할 수 있는 일이다.

(5) 體細胞的인 死는 全生命體의 有機的 不調和로 말미암은 것이다.

(6) 生命을 하나의 機構로 自定한 第一의 命題에 從하면 死는 單細胞이든지 全體細胞인 境遇이든지 細胞 或은 生命體의 物理化學的인 諸變化의 一結果이다.

(7) 生命體에 自然死가 생긴 때에는 遺傳과 環境과가 結合된 作用에 依하여 決定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以 上의 七個命題를 通하여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빠루는 어떠한 生命일지라도 生物本來의 物理化學的 構成에 依하여 決定된바의 一定한 壽命이있고, 오즉 그 長短으로 말하면 環境의 如何에 依하여 그 一定한 限度內에서만 改變되는 것이다.

그리고 K. 콜셀트의 有名한 著作『壽命, 年齡및死』에서 抄出한 死의 本質에 關한 先人の 死에 關한 學說을 簡單히 紹介하건대 와이쓰만은『死는 이

어 回復할수없는 生命의 損失이라』고 하였고, W· 루는 『死는 다시 生活할수 없는 일이라』고 定議하였다.

또 C· 벨다의 말과 같이 생의觀念은 不死의 觀念을 根本적으로 排除할른지는 알 수 없으나 生命體의 老衰現象은

嚴 然한 事實이오 또 그와 關聯하여 生命體를 形成한 要素는 永續적으로 그의 有機的 機能을 保存할 수 없는 것은 自然死에 關한 빠루의 學說을 빌지 아니할지라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위에서 抄錄한 先人の 見解가 死의 說明으로써 完全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또死는 누구의 말과 같이 □의 成長이란 무엇인가 或은 授精이란 무엇인가 하는 問題를 가지고 生物學者가 實證的, 卽物的으로 吟味함과같이 吟味할수있는 問題도아니므로, 첫째 死의觀念을 規定함이 容易한일이아니다.

그러므로 死의概念을 確定하여 하나의 把握할수있는 形態를 나타내지 안으면 안 되겠는데 그러한다 하면 먼저 生이란 무엇이나 하는

問 題를 究明치 안하면 안 된다. 그리고 누구는 『生이란 무엇이나 하면 이것이 大問題이다. 이제 生의 가장 本質的인 特徵을 一言으로 表示하여 그를 體制라 할 것 같으면, 그것은 하나의 閉鎖體制의 秩序있는 配置를 意味한것인데, 어느 部分도 全體에 對하여 一定한 役割을 行하고 또 어느 部分도 全體中에 適當한 位置와 任務를 가지고 있다는 듯이 生命있는것은 混沌하여 無秩序한것과는 根本적으로 다르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生命있는것 卽 生物은 體制를 가진다는 意味에 있어서, 그 名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生命의 主要律로 해서 第一 動力學的 平衡狀態에 依하여 有機的 體系를 保存하는일이오. 第二 그高次的配順을

學 示한다하면 그의 否定面으로써 어떠한 規定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 方面에 있어서 死의 問題를 取扱함은 自然科學者이나 哲學者이나 다를 것이 없으리라』고 하였다.

그런데 周易의 細目原理는 勿論生命을 하나의 體制로 생각한 것이오. 統天이니 御天이니하는 條實意識은 生命의 現象型態에 關한 高次配順의 秩序를 意味한 것이 어니와 原始反終의 轉變現象으로 死生을 說明함은 어찌哲學의 立地에서 自然科學的 觀察方法을 不唆한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程子는 『問繫解自天道言, 中庸自人事言曰(程子), 繫解雖天地陰陽言之然卒曰, 默而成之, 不言而信之存乎德行, 中庸亦曰, 鬼神之爲德, 其盛矣乎, 視之而不見, □之而不聞, 體物而不可遺,

使 天下之人, □明盛服, 以承祭祀, 洋洋乎如其上如其左右, 詩曰, 神之

格思，不可度思，□不射思，夫微之顯□之不可揜，是豈不同』이라 하였다.

그런데 神의 意가 같고 같이 아니한 것은 易과 詩와 中庸과의 異同을 立論할만한 條件이 될 수 없다. 그리고 周易의 神은 魂을 이룸이요. 鬼는 魄을 이룸이어나와, 또 中庸의 鬼神도 人格者을 이룬 것이 아니니 언즉 形而上者의 人格說을 非難한 程子로서 以上과같이 말한 것은 理解할 수 없는 일이다.

무릇 有機體가 그 生을 끄치면 精氣는 分散하고 形骸는 解體되어 從來의 物體는 消滅하고 마는 것이니, 그러므로 分散한 者는 魂이라 하거나 魄이라 하거나 神이라 하거나 鬼라 하거나

物 質일 뿐이요. 生命이랄수없다. 따라서 『以承祭祀，洋洋乎如在其上，如在其左右云云』은 易理와 何等의 關係가 있는 것이 아니다. 또 周易의 神은 偶像의 神을 이룸이 아니요. 物體의 神 卽 物理의 神妙를 말한 것이니, 그것은 中庸의 神과 같은 觀念이 아니다.

그리고 中庸은 道義說이요. 周易은 物理이니 繫辭와 中庸이 같을 수 없거니와 저의 『詩曰云云』의 引用은 더 論難할 것이 없으나 『聖人用意深處，全在□辭，詩書乃格言』이라한 程子로서 그러한 引用을 가지고 繫辭를 詩傳과 混同한것은 可惜한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朱 子는 『衆者物之似也，此言聖人作易，觀卦爻之象，而繫以辭也，又曰，易當來，只是爲下筮而作，文言筮辭，却是推說，做義理上去，觀乾坤二卦，便可見，孔子曰，聖人設卦觀象繫辭焉，而明吉凶，不是占□，如何明吉凶』이라하였는데 여기서 말한 『占筮운운』은 自然의 理로써 自然物의 吉凶을 判斷함을 이룸이요. 저의 任意로 義理上의 觀念을 做出하여 自然의 理를 歪曲함을 이룸이 아니어나와 朱子가 孔子의 文言과 □傳으로써 自然의 理를 말한 것이 아니요. 義理上으로 思考하여 做出한 推說이라함은 決코酷評이 아니다. 그러므로 繫辭傳은 『仰而觀乎天文하고 俯而察乎地理라. 是故로 知幽名之故하며 原始反終이라. 知死生之說하며 精氣爲物이요. 浮魂爲變이라. 是故로 知鬼神之情狀이라』 하였다.

古 代의 人間은 먼저 行動하고 그리 하여 저의 行動에서 얻은 것을 認識하였다. 卽 仰하여써 天文을 觀하고 俯하여써 地理를 察하여 天文과 地理를 認識하였다. 그리 하여 上에는 明이 있고, 아래는 幽가 잇으니 저들은 仰하여 明을 知하고 俯하여 幽를 知하였다. 그리고 그 明과 幽는 原에서 始하여 終하면 反하므로 物의 死生을 알았다. 卽死는 終이니 反하여 生할줄을 알았다.